대한불교진흥원 화요 열린 강좌 김범진(명상코칭가)의 '통찰력의 비밀, 스티브 잡스와 선(禪)'

IT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티브 잡스(56). 애플의 최고경영자로 있는 그는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실리콘 밸리의 아이콘' 으로 떠올랐다.

그러다 보니 프레젠테이션 스킬, 업무 비결, 경영마인드 등 스티브 잡스의 성공 비결을 다룬 책들이 적잖이 나왔다.

2010년 10월 출간된 〈스티브 잡스 아이마인드〉(이상미디어 刊)의 저자이자 명상코칭가인 김범진은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는 그저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만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혁신, 완벽주의, 도전정신, 탁월한 예술가적 안목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보이지 않는 통찰력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이란 바로 내면의 풍경, 마음의 힘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 선(禪)사상에 심취했고 명상을 즐기며 코분 치노라는 일본의 선승을 평생 멘토로 존경했다. 저자 김범진은 위대한 선사들의 깨달음이 스티브 잡스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애플은 비즈니스 세계를 뒤흔들고 인류의 미래를 재창조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2월 22일 불교방송 다보원에서 김범진 명상코칭가를 강연자로 '통찰력의 비밀, 스티브 잡스와 선(禪)' 을 주제로 화요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손가락으로 아이폰 화면 터치… 이것이 直指다

'스티브 잡스 아이 마인드' 저자 김 범 진 명상코칭가, "선(禪)사상이 스티브 잡스 성공 이끌었다" 주장

#스티브 잡스는 선(禪) 수행자

아이폰3이 출시됐을 때 나는 그 혁신적인 디자인에서 왠지 친근함을 느꼈다. 그것은 일본 선원에서 본 선석(禪石)의 모습이었다. 선석 사진과 아이폰의 뒷면을 함께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함에 놀라워한다.

더욱이 아이폰에서 단순하고 고도로 집중된 삶을 사는 선(禪)수행자의 기운이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스티브 잡스의 내면에는 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에 태어나 샌프란시스코의 선셋 디스트릭스에서 양부모인 폴과 클라라 잡스 밑에서 자라났다. 잡스의 유년시절인 1960년대에 샌프란시스코는 히피와 선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 두 가지는 잡스의 내면에 평생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동양에서 건너온 선의 물결이 넘치고 있었다. '선의 붐(Zen Boom)' 이라 불리는 현상이었다.

선불교는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지식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또한 젊은이들은 히피 문화에 빠져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LSD(향정신성의약품)와 선의 체험이 유사하다는 것에 끌려 선에 입문하곤 했다. 개별적 존재가 온 우주의 전체성에서 녹아드는 행복한 느낌,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느낌, 폭발하는 창조성, 영적인 체험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스티브 잡스는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분위기에서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다.

잡스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마약 같은 환각제를 가까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양의 사상과 선을 알게 된 후에는 마약이 유치하다고 느끼게 됐다. 잡스는 대학 도서관에서 불교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곧 선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는 향을 피우고 침대 위에 양탄자를 깐 다음 그 위에서 명상을 했다.

컴퓨터와 논리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던 잡스에게 직관과 체험,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은 신선한 자극이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타리(Atari)라는 게임회사에 근무하다가 친구 한명과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구루들은 잡스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도 여행에서 돌아온 잡스는 본격적으로 로스알토스 선원에서 선 수행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의 정신적 스승이 된 사람, 코분 치노(1938~2002) 선사를 만난다. 그 후 잡스는 선 수행에 깊이 빠졌고 선은 삶의 일부가 됐다.

치노 선사와 잡스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서 잡스가 애플에서 나와 넥스트를 창업했을 때는 회사의 공식적인 멘토 역할을 맡기도 했다.

#단순함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다

아이팟은 그때까지 애플이 내놓은 제품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다. 2002년 7월, 윈도 사용자도 바로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아이팟이 나오자 매출은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2002년 가을에 14만 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20만 대나 팔려나갔다. 아이팟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끈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함과 간결함에 있었다. 디자인은 단순했고 사용법은 간단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융합돼 있어서 아이팟을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저장돼 있던 음악이 자동적으로 아이팟에 다운로드 됐다. 그 어떤 매뉴얼이나 주의사항도 필요 없을 정도였다. 이런 단순함은 잡스가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잡스는 개발팀에게 버튼을 세 번 이내로 눌러서 원하는 곡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잡스는 삶의 모든 면에서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팟을 소개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단순한(Simple)' 이라는 키워드다.

선의 단순함도 연결을 전제로 한다. 선사들의 삶은 간소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결코 궁핍이나 결여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행복의 근원과 연결돼 있음을 알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을 자신 밖에서 찾지 않고 소유할 필요도 없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면 된다.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집에 정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 산을 향해 작은 창을 하나 내면 그만이다. 내가 다른 존재와 연결돼 있음을 자각하고, 행복의 근원과 하나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단순해진다.

#곧바로의 정신, 직관(直觀)의 힘

아이폰의 장점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사용하기에 편하다는 점이다. 사용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아도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직관적 판단 후 실행해보면 그렇게 된다. 애플의 제품에 대한 평가에는 직관성이 강조된다. 직관적 인터페이스는 두꺼운 사용설명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마치 선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두꺼운 경전을 필요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립문자(不立文字). 직관은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잡스는 고객들이 사용하기 편한 기술을 창조하는 것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개발로 이어졌다. 직관적 디자인에 대한 강조는 애플의 디자인 철학 가운데 하나인 '박스에서 꺼내 바로 작동하기' 에서 잘 드러난다.

스티브 잡스의 세 가지 통찰법은

단순하라·깨라·곧바로 뛰어들어라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아이폰의 외형은 매우 단순하다. 그리고 색깔만 두 종류로 했을 뿐 모델도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모델의 단순화를 통해 애플은 그 어떤 경쟁업체보다 많은 수의 파트너를 갖게 됐다. 아이폰이 한 가지 모델로만 생산되는 덕에 모든 액세서리 업체들이 이 모델을 위해 금속, 나무, 실리콘, 고무 등의 재질로 된 다양한 케이스를 탄생시켰다. 단순함을 통해 역설적으로 다양성을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직지(直指)의 힘

애플은 컴퓨터 명령어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화면에 포인터로 조작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 를 개인용 컴퓨터에 처음 상용화 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모두 세 번에 걸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혁명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1984년 마우스로 조작하는 초기 맥이었다. 그 이전의 컴퓨터는 키보드 명령어로 입력해서 처리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컴퓨터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컴퓨터의 불립문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두 번째는 2001년 클릭 휠을 사용해 조작하는 아이팟이다. 그 이전의 MP3는 클릭을 수없이 해야만 찾을 수 있는 구조였다. 천 곡이상 저장된 아이팟에서 이런 시스템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세 번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쓰인 터치 조작이다. 손가락은 화면의 대상에 곧바로 접촉한다. 매개를 거치지 않고 본성으로 곧바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선의 '직지(直指)' 와 일맥상통한다. 선의 네 가지 요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지인심(直指人心)이다. 문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자신의 본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가슴의 소리를 따르라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졸업식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잡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식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당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애플, 매킨토시 픽사,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라 만들어낸 결과였다. 직관은 머리가 아닌 가슴의 목소리다.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뜨거운 가슴을 따라가는 길이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생각을 따라 가느라, 다른 이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가슴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궁극적 실재나 존재의 본성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통찰의 대상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발견되기 힘들고 더욱이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다. 본성을 깨닫고자 하는 선에서는 단순한 삶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는다.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의식 수준을 뛰어넘어 고도로 집중되고 맑은 의식 상태에서 직접 바라봄을 통해 존재의 실상이 드러난다. 잡스는 젊은 시절부터 선수행을 통해 이런 직관적 능력을 키워왔다.

김범진 명상코칭가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 법학과 대학원을 마친 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액센츄어 동경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 나우코칭의 대표를 맡고 있다.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예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기(6개월 과정)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학 과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1. 기 초 이 론	이론 및 실기 •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목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보유자 경호 큰스님 직강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바라무 조교 보련 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및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직강 ⊙ 속성반 1. 바라, 작법무, 실전위주 2. 화청, 살풀이, 극락무, 승무, 사주신주, 구궁법, 조상영가 찾는법
2. 전 문 의 식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금	5~6시	
3. 바 라 작법무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다게작법,삼귀의,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목 • 금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 등록되어 있는 바라, 작법무

■ 특 전 :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 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0일 ~ 3월 20일 (수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귀 해 동 사
부산영산보존회 바라 작법무 연수원 /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번지 영축사 (구, 만덕동 해동사)
연락처 : 이사장 원산 스님 011-582-8975 / 혜화 교무스님 010-2563-5550

천하대도 혜안과 천안통을 정통불가와 도가정통 초우주의식 주문도법으로 생명과 자성에 문을찾는 견성도법 지도자 포교사 양성 신묘년 천안통 대법회

도고마성 귀신잡신 마귀신은 역대 그 누구도 못다룬 마장을 도덕천존 보좌관 주초대장만이 다룬 법 전수

21세기 최대의 이슈.
평생자격취득 교육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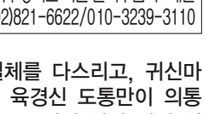
생노병사의 베일에 감춰진 대체의학 인간의 병은 어디서 오는가 역대 그 누구도 모른 베일을 벗기는 도가의 최고 공능법과 유가 불가의 특수공능법과 최고 비밀 초우주의 생명에 문을 찾는 특수 공능기공사 특수 참선법에 초보자, 관리자, 지도자, 자격취득 평생직업 전문양성 교육. 얼굴상이 부귀와 빈천을 좌우한다는 전문인 양성. 광대뼈, 들창코, 주걱턱, 위입술, 신체균형 조정. 최첨단 단기수련으로 자격취득 국내외에 진출.

천지공사 이 법은 지구촌 현재 종사자 및 맛사지 지압 교정 특수참선수행법 영업을 하는자, 의술담당자, 대학졸업자, 체육유단자, 시술자 ,기공사, 지압사, 체육사, 침술사, 취직으로 휴직사 피부미용종사자, 신에 접신한자, 한방양방시술자, 골격사, 국내외취업자, 비만관리사, 체형미용사 등 환자와 인체를 다루는 분들과 현재 종사자 대체의학으로 사람을 만지면 본인 원기와 골수가 빠져나가 건강과 생명에 지장은 물론 가정들도 불화가 일어나는 일체법을 막아주는 도가, 유가, 불가 최고의 초 공능비법 수련으로 가장빠른 평생직업 자격을 취득하여 직장에 구애받지 않는 지도자 기공사, 관리자, 국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에 찬스 명퇴자 체육종사자 현재 사업을 경영 하는분.

■교육과정 : 1년과정 6개월과정 특수반 3개월
■교 육 비 : 일반 50만원 특수반 100만원
■교육시간 : 매주 금, 토, 일 - 오전반, 오후반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02)821-6622, 7767 / 010-3239-3110
사단법인 세계 불교달마종교육원
면벽구년 달마심기선무기공회

대용맹정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도덕천존대일여래 보좌관 주초대장이 불사신 불사조를 관리하시므로 살아서 살아서 무진도법인 도적 천존에 들어가야 원시천존에 주초대장을 만나 성현과 신선과 사람몸을 받고 이세상 거부장자로 태어나려면 천경신 지경신 인경신 수행한 자만이 현장법사와 손오공과 마장을 다루는 법을 전수받는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전통도장도통으로 혜안을 열어 자신의 일체를 다스리고, 귀신마장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득도하는 육경신 도통만이 의통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빙이 된 영가를 해탈 시키는 초등력으로 생명에 문을 찾는 혜안과 천안통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 대통하여 팔자와 운명을 바꾸어 천하를 다스리는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년 수행보다 더 큰 능력을 얻는 지도자 양성.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부산특별시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 동시법회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 입제 : 양력 2011년 3월 5일(음 1월 23일 토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1년 3월 6일(음 1월 24일 일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입구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 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중 천룡진인 환성태일 합장